

하야시 후미코와 오노미치(尾道)*

- 『아코디언과 해변마을(風琴と魚の町)』을 중심으로 -

이상복**
sblee@syu.ac.kr

<目次>

- | | |
|-----------------|--------------|
| 1. 서론 | 3. 아코디언과 아버지 |
| 2. 오노미치(尾道)의 표상 | 4. 결론 |

主題語: 아코디언(Accordion), 아버지(father), 방랑(wandering), 오노미치(Onomichi), 고향(birthplace)

1. 서론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 1903-1951, 이하 ‘후미코’)의 『아코디언¹⁾과 해변마을(風琴と魚の町)²⁾은 “단편소설의 처녀작³⁾”으로, “소설다운 소설⁴⁾”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어 있는 오노미치(尾道)에 정착하기 전 후미코 가족은 직업

* 이 논문은 2014년 삼육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삼육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1) 『風琴と魚の町』의 “風琴”을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통하여 “아코디언”으로 표기함. 텍스트에서 “보자기에서 아코디언을 꺼내어 어깨에 걸쳤다. 아버지의 아코디언은 심하게 낡고 커서 어깨에 걸쳐야 하기 때문에 가죽벨트가 달려 있었다.(風呂敷包みから風琴を出して肩にかけて。父の風琴は、おそろしく古風で、大きくて、肩に掛けられるべく、皮のベルトがついていた。), 『放浪記』에서도 “하얀 보자기에서 마치 트럼프와 같이 큰 아코디언을 꺼내어, 아코디언 끈을 어깨에 걸치고 켜기 시작했다.(白い風呂敷包みの中から、まるでトランクのやうに大きい風琴を出すと、風琴の紐を肩にかけて鳴らし出す。林芙美子(1951)『放浪記』新潮社、p.151)고 적고 있다. 또한, 福田清人・遠藤充彦「暗い時代のもとで」(『人と作品 林芙美子』15, 清水書院(1966), p.29)에서도 「オイチニイの薬売りをしていた」를 “아코디언을 켜고 노래 부르며 약을 팔러 다닌다(アコーディオンをひいて歌をうたい薬を売り歩く)”고 적고 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아코디언”으로 볼 수 있다.

“魚の町”를 “물고기 마을”로 표기할 수도 있으나, 텍스트에 “일장기가 펄럭이는 ‘해변마을’에 내렸다.(日の丸の旗のヒラヒラした海辺の町へ降りた, p.5)”는 표현도 있어 ‘해변마을’로 표기함.

2) 『아코디언과 해변마을(風琴と魚の町)』은 후미코가 1926년 다시 오노미치에 들렀을 때 쓰기 시작하였으나, 1931년 4월 「改造」에 발표

3) 井上隆晴(1990)『林芙美子とその周辺』武蔵野書房、p.32

4) 山形暁子(1999)「林芙美子『風琴と魚の町』」『民主文學』406号, 新日本出版社、p.216

특성상 “12회나 이사”⁵⁾다녔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행상을 하는 부모를 따라 방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후미코는 스스로를 “숙명적인 방랑자”⁶⁾라고 칭하고 있다.

그런 생활의 연장선에서 “일시적으로 머물 생각”⁷⁾이었던 오노미치에서 후미코는 성장기를 보내게 된다. 그때 경험한 생활을 후미코는 “낭만적인 동화처럼 기억”⁸⁾하고 있었다.

『아코디언과 해변마을』은 오노미치에서의 지난날들을 회상하며, 작가 자신을 투영시킨 마사코를 주인공으로 그 생활상을 그려내고 있다. 단편이지만, 1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0장에서는 아버지가 약장사에서 화장품으로 업종을 바꾸고 난 후 과장선전이 문제가 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장면까지 묘사되어 있다. 마사코는 “이때의 슬픔을 일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この時の悲しみを、一生忘れないだろう。)”라고 말한다.

후미코는 이렇게 궁핍했던 유년기를 회상하며 아버지⁹⁾가 경찰관에게 당한 굴욕을 잊을 수 없었다. 야마가타 아키코는 “다감(多感)한 소녀기에 빈곤하여 당한 굴욕과 비애(悲哀)야말로 후미코가 『아코디언과 해변마을』을 쓰게 된 최대의 동기”¹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의 선행연구에서, 이타카키 나오키(板垣直子)는 “후미코가 말한 동화적인 성격이 역시 전편의 기초를 이루고 있지만, 섬세한 언어 표현의 진한 정취가 한편의 명작과 같은 기운”¹¹⁾을 담고 있다고, 박호영은 “어린시절 오노미치에서의 추억을 소재로 그 곳에서 느꼈던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¹²⁾고 평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후미코가 “시에서 산문으로의 탈출에 성공”한 “자전적인 냄새가 농후한 명작”¹³⁾이라고 논하고 있다.

이런 자전적인 요소 뿐 만아니라, “쇼와(昭和)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생활의 빈곤, 그 속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는 정신적인 강인함”¹⁴⁾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평도 있다.

5) 森まゆみ(2004)『林芙美子 放浪記 - 森まゆみ解説』みすず書房、p.247

6) 林芙美子(1951)『放浪記』新潮社、p.5

7) 일찍이 부모를 따라 후미코가 방랑생활을 하다 가장 오랫동안 정착한 곳이 오노미치이다. 후미코는「文學的自叙傳」에서도 “오카야마와 히로시마 사이에 오노미치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잠깐 머물 생각이었던 이 오노미치라는 해안 마을에 나는 양친과 셋이서 7년(1916-1922년) 정도 살았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林芙美子(1952)『文學的自叙傳』『林芙美子全集』19 新潮社、p.5

8) 板垣直子(1987)『林芙美子』『婦人作家評伝』日本図書センター、p.174

9) 본 논문에서의 아버지는 모두 후미코의 의붓아버지를 말함.

10) 山形曉子(1999), 전계서, p.143

11) 板垣直子(1987), 전계서, p.174

12) 박호영(2007)「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 『풍금과 물고기마을(風琴と魚の町)』」『일본어문학』37, 일본어문학회, p.373

13) 후미코의 자전적 소설로서는『아코디언과 어촌(風琴と魚の町)』『청빈의 글(清貧の書)』『방랑기(放浪記)』가 3대 명작으로 꼽히고 있다. 和田芳恵(1981)『解説』『新潮日本文學』22, 新潮社, p.531

14) 麻生和子(1998)『風琴と魚の町』『國文學 解釋と鑑賞』63(1) 至文堂、p.100

본고에서는, 후미코가 마사코라는 주인공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 오노미치에서의 일상과 경제적인 빈곤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유년시절을 고찰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후미코의 가장 자전적 성향이 강한 『방랑기(放浪記)』에 그려진 후미코와 아버지의 관계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런 고찰을 통하여, 후미코가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오노미치에서의 유년시절과 부모, 그중에서도 의붓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2. 오노미치(尾道)의 표상

후미코 가족이 오노미치에 도착한 것은 1916년 5월이었고, 후미코는 6월 22일에 오노미치시립 제2학교 초등학교(尾道市立第二小学校, 現:土堂小学校) 5학년¹⁵⁾으로 편입학하였다.¹⁶⁾ 오노미치에서 고등여학교까지 졸업한 후미코는 도쿄로 상경한다. 그 뒤를 이어 부모도 상경하여 노점(露店)과 야점(夜店)을 함께 한다. 그러나 관동대 지진으로 후미코는 오노미치로 피난하여 두 달 쯤 재류하다, 먼저 시코쿠다카마쓰(四國高松)로 가 있던 부모와 합류한다.¹⁷⁾ 그 후, 후미코는 도쿄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오노미치를 찾았을 때 『아코디언과 해변마을』을 쓰기 시작¹⁸⁾했으나, 발표는 1931년에 한다.

『아코디언과 해변마을』의 마사코 가족이 규슈(九州)를 출발해 오사카(大阪)로 가는 도중에 기차 안에서 처음 보게 된 오노미치는 아름다웠으며, 게다가 많은 “일장기”가 걸려 있어 “마쓰리”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때 마침 “시장이 마을을 방문하는 날”이었던 것이다. 마사코 아버지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오노미치에서 내리기로 한다. 처음 마사코 가족이 기차 안에서 창가를 통해서 본 오노미치 마을의 풍경이다.

15) 작품에서 마사코는 6학년에 편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스토리는 함께하고 있다.

16) 平林たい子(1969)『林芙美子』新潮社, p.27

17) 清水英子(1998)『林芙美子年譜』『林芙美子・ゆきゆきて「放浪記」』新人物往來社, p.212

18) 1925년 후미코는 노무라 요시아(野村吉哉)의 학대를 받으면서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무라에게 애인이 생겨 두 사람은 헤어진다. 1926년 히라바야시 다이코도 아나키스트인이다. 도쿠다료(飯田徳太郎)와 헤어진다. 평소 친분이 있던 후미코와 다이코는 혼고 3초메의 다이쿠로야(大黒屋)라는 술집 이층에서 함께 동숙하게 된 것이다. 1926년 9월 다이코가 고보리 진지(小堀甚二)와 결혼하게 되자, 10월 후미코는 오노미치로 돌아가『아코디언과 해변마을』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 다시 상경한 후미코는 12월 데쓰카 로쿠빈(手塚緑敏)과 결혼한다. 和田芳恵(1981), 전게서, p.528 참조

움직이지 않는 바다와 우뚝 선 구름의 경치는 14세인 내 눈에 벽처럼 찬란하게 비쳤다. 그 봄의 바다를 둘러싸고 많은 일장기가 걸려 있는 마을이었다. 눈을 감고 있던 아버지는 붉은 일장기를 보자, 서둘러 일어나 기차 창문으로 목을 내밀었다. “이 마을은 축제라도 하는 것 같아, 내려 볼까?” 어머니도 경문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일어났다.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지, 아직 해가 높이 떠 있으니 내려서 도시락 값이라도 벌어 볼까.”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각각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일장기가 펄럭이는 해변마을에 내렸다.¹⁹⁾

이렇게 다른 도시로 향하던 도중에 “도시락 값”이라도 벌어 볼 작정으로 내린 것이 계기가 되어 “후년(後年) 후미코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오노미치의 생활이 시작”²⁰⁾된 것이다. 여기서 마사코 나이를 14세로 적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학교 이야기를 할 때는 마사코는 “열세 살이나 되어서, 5학년”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결국 마사코는 6학년에 편입학하게 된다. 이때 마사코를 13세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한 작품 안에서도 마사코의 나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다. 우선, 후미코의 초등학교 전학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후미코는 『방랑기』에서 처음 나가사키(長崎)에 있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사세보(佐世保), 구루메(久留米), 시모네세키(下関), 모지(門司), 도바타(戸畑), 오리오(折尾) 순으로 4년 동안에 “7번”²¹⁾이나 학교를 옮겨 다녔다고, 「추억의 기록(思ひ出の記)」에서는 초등학교를 “12번 전학”²²⁾했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히라바야시 다이코가 제시한 후미코의 학적부 기록에 의하면,

1910년(1학년) 長崎市勝山小学校。佐世保市八番女兒尋常小学校。

1911년(2학년) 下関市名池小学校。

1914년(5학년) 鹿兒島市山下小学校。

1916년(5학년) 尾道市土堂小学校。

1917년(6학년)

1918년 3월 尾道市土堂小学校 卒業。²³⁾

19) 『風琴と魚の町』테스트 인용은 林芙美子(1951)『林芙美子全集』3 新潮社에 따름. 이하 동일.

動かない海と、屹立した雲の景色は十四歳の私の眼に壁のように照り輝いて写つた。その春の海を囲んで、たくさん、日の丸の旗をかかげた町があつた。目蓋をとじていた父は、朱い日の丸の旗を見ると、せはしく立ちあがつて汽車の窓から首を出した。

「此町は、祭でもあるらしい、降りてみんかやのう」母も経文を合財袋にしまいながら、立ちあがつた。「ほんとに、綺麗な町ぢや、まだ陽が高いけに、降りて弁当の代でも稼ぎまつせ」で、私達三人は、各々の荷物を肩に背負つて、日の丸の旗のヒラヒラした海辺の町へ降りた。(p.5)

20) 福田清人·遠藤充彦(1966), 전게서, p.30

21) 『방랑기』, p.6 참조.

22) 林芙美子(1952)「思ひ出の記」『林芙美子全集』19 新潮社, p.242

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다이코는 “학적을 두지 않은 채 다닌 학교도 몇 곳인가 있는 것 같다.”²⁴⁾고 밝히고 있다.

후미코 가족의 오노미치 정착에 대해서도 텍스트와 다른 설이 있다. 텍스트에서는 기차 안에서 오노미치라는 마을을 보고 즉흥적으로 하차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연히 아니라 계획적²⁵⁾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 논문의 본질상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참고적인 표기로 마무리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자전적 소설로 알려져 있지만, “아무리 사실에 입각한 소설이라고 해도 사실과의 사이에 언제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며, “없는 일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소설”²⁶⁾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튼 후미코는 이 오노미치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가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지만,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문학에도 눈을 뜨고, 첫사랑의 즐거움과 슬픔을 경험”²⁷⁾했다. 이 텍스트에 학교 선생님이 후미코의 문학적 자질을 발견²⁸⁾하고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남학생과는 교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 무렵, 내가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다는 것은 무척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 좋아하는 남자아이는 생선가게 아들이었다.(중략) 다음날 학교에 가서 보니, 그 아이는 5학년의 반장이었다.²⁹⁾

이렇게 마사코의 남자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 후미코의 남자 친구가 그 당시 중학생이었다. 아무튼 오노미치에서의 첫사랑이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오노미치에서의 생활을 후미코가 “인생의 도상(途上)에서 자주 그리워하며 회상”³⁰⁾하고 있다는 것을 『방랑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바다가 보였다. 5년 만에 본다. 오노미치의 바다는 정겹다. 기차가 오노미치의 바다에 다다르자

23) 平林たい子(1974)「解説」『日本の文学』47, 中央公論社, pp.488-489 참조

24) 平林たい子(1969), 전게서, p.19

25) 清水英子(1998), 전게서, p.68

26) 平林たい子(1969), 전게서, p.24

27) 此経啓助(2011)「林芙美子の古里・尾道」『林芙美子の藝術』日本大學藝術學部圖書館, p.108

28)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郎)의 연보에 의하면, 1916년 후미코가 초등학교 5학년 편입학 했을 때 하와이 출생인 고바야시 마사오(小林正雄) 교사의 권유로 소설을 읽기 시작했으며, 1917년에는 고바야시 마사오의 집에서 수험공부를 했다. 이때 후미코의 첫사랑인 다다노우미중학교(忠海中學校) 학생인 오카노 군이치(岡野軍一)를 만나게 된다. 川本三郎(2003)「林芙美子 略年譜」『林芙美子の昭和』新書館 p.400

29) その頃、私は好きな男の子があつたので、なんぼうにもそれは恥づかしい事であつた。その好きな男の子は、魚屋のせがれであつた。(中略)学校へ翌る日行つて見たら、その子は五年生の組長であつた。(p.19)

30) 此経啓助(2011), 상게서, p.109

작은 마을의 낡아서 거무데데한 지붕이 제등(提燈)처럼 펼쳐진다. 붉은 센코지(天光寺)의 탑이 보인다. 산에는 산뜻한 새잎이 무성하다. 녹색바다 건너편에 도크의 붉은 배가 돛대를 하늘로 향하고 있다.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³¹⁾

위의 인용문은 후미코가 도쿄에서 다시 오노미치를 찾았을 때 본 마을 모습이다. 후미코는 오노미치의 바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만큼 “처량한 몸으로 다시 여행의 출발지인 오노미치”(『방랑기』 p.135)로 돌아 올 정도로, 오노미치를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살아가는 게 괴로워지면 ‘고향’을 생각한다. (중략) 나는 정말로 고향이 어디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괴로움이나 즐거움 속에서 성장해 간 곳이 고향이다.³²⁾

이렇게 특별히 고향이랄 곳도 없는 후미코에게 있어서의 오노미치는, 후미코가 힘들고 지쳤을 때 찾고 싶은 “제2의 고향”³³⁾과 같은 곳이기도 하다.

텍스트에서는 오노미치의 생활 중에서도 처음 오노미치에 내리게 된 경위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습, 부모와의 생활, 남자 친구 이야기까지 그려져 있다.

후미코는 이렇게 자신이 유년기를 보낸 오노미치에서의 일상을 마사코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켜 묘사함에 있어, 후미코와 마사코의 연령과 학교 편입학의 학년, 남자친구 연령 등의 차이는 있지만, 오노미치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섬세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후미코에게 있어 오노미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임을 알 수 있다.

31) 『放浪記』 인용은 林芙美子(1951)『林芙美子全集』2 新潮社에 따름. 이하 동일

海が見える。海が見える。五年振りに見る。尾道の海はなつかしい。汽車が尾道の海へさしかかると、煤けた小さい町の屋根が提灯のやうに広がつて来る。赤い天光寺の塔が見える、山は爽かな若葉だ。緑色の海向うにドックの赤い船が、帆柱を空に突きさしてゐる。私は涙があふれてゐた。(『放浪記』, p.134)

32) 私には生きる事が苦しくなると、故郷をといふものを考へる。(中略) 私には本當は、古理なんてどこでもいゝのだと思ふ。苦しみや楽しみの中にそだつていつたところが、古理なのですもの。(『放浪記』, p.177)

33) 福田清人・遠藤充彦(1966), 전게서, p.27

3. 아코디언과 아버지

후미코에게는 아버지가 약장사를 하며 항상 부르는 노랫소리와 아코디언 소리가 유년기의 아주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후미코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방랑기』에서, “시코쿠 이요 사람으로 면이나 마직물을 파는 행상인” 미야타 아사타로(宮田麻太浪)와, “구슈 사쿠라지마(櫻島) 온천 여관집 딸³⁴⁾”이었던 하야시 기쿠(林キク)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적고 있다.³⁵⁾ 후미코는 “당시 미야타가(宮田家)의 현실에서 아사타로(麻太浪)와 기쿠(キク)와의 결혼 그 자체가 우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³⁶⁾음으로, 친부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사생아”³⁷⁾로 어머니 기쿠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었다. 친부와 헤어지게 된 이유가 『방랑기』에 적혀있다.

“여덟 살 때, 나의 어린 인생에도 폭풍이 불어 닥쳤다. 와카마쓰(若松)에서 포목상을 하여 꽤 재산을 모았던 아버지는 나가사키(長崎) 앞바다 야마쿠사(天草)에서 도망쳐 온 하마(濱)라는 기생을 집에 들여 살고 있었다. 눈에 내리던 음력설을 끝으로 어머니는 여덟 살이었던 나를 데리고 아버지 집을 나와 버린 것이다.³⁸⁾

34) 기쿠의 아버지는 林新左衛門으로, 鹿児島六日市에서 약 제조를 하다가 전업하여 東桜島の 故里温泉에서 여관을 하고 있었다.

35) 후미코 어머니 기쿠가 36세이며, 아버지 미야타 아사타로는 22세였다. 竹本千方吉(1985)『人間・林芙美子』筑摩書房, p.45

36) 竹本千方吉(1985), 전게서, p.26

37) 후미코가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가족관계에 대한 여러 설은 다음과 같다. 미야타(宮田)의 어머니 사요(サヨ)가 반대했기 때문에, 후미코를 기쿠의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清水英子(1998), 전게서, p.34
기쿠는 후미코를 출산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다른 자녀를 출산했다. 『방랑기』에서 후미코는 “나의 형제는 6명이지만, 아직 한 번도 형제들을 만난 적이 없다. 한 명의 언니만은 괴로운 추억이 있다”(p.18)고 적고 있다. 그 언니와 후미코가 사생아로 기쿠의 호적에 명기되어 있다. 竹本千方吉(1985), 전게서, p.45 참조

기쿠가 후미코 출산 전에 이미 몇 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 동안의 사정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언니인 히데(ヒデ)의 아버지는 경찰이었다. 福田清人・遠藤充彦(1966), 전게서, p.14

기쿠는 그 당시 3번째 남편인 순경에 의해 딸을 낳았다. 그 순경 외에 이미 두 사람의 남편으로부터 한명씩 남자아이를 두고 있었다. 板垣直子(1987)『林芙美子』『婦人作家評伝』, 日本図書センター, p.14
사쿠라지마(櫻島)에서 기쿠와 젊은 시절 친구였던 노부인에게 그 사정을 물어보았지만, 모른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후미코 밖에 모른다. 그 후 후미코의 친척을 만나고, 편지로 다시 확인한 결과 후미코에게는 언니밖에 없다는 답을 받았다. 平林たい子(1974), 전게서, p.486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확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후미코에게 아버지가 다른 언니가 한 명 있었다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38) 八つの時、私の幼い人生にも、暴風が吹きつけてきたのだ。若松で、呉服物の鞆賣をして、かなりの財産をつくつてゐた父は、長崎の沖の天草から逃げて来た濱と云ふ藝者を家に入れてゐた。雪の降る舊正月を最後として、私の母は、八つの私を連れて父の家を出てしまつたのだ。(『放浪記』, p.5)

친부에게 ‘하마’라는 여자가 생겨 어머니 키쿠는 8세가 된 후미코를 데리고 “1910년 눈 내리는 음력 1월”³⁹⁾에 집을 나온 것이다. 그 후, 후미코 어머니는 20세나 연하인 사와이 기사부로(澤井喜三郎)와 함께 살게 되자, 자연스럽게 후미코는 의붓아버지⁴⁰⁾와 생활하게 된다. 이때부터 여러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방랑생활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후미코와 의붓아버지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마사코와 아버지의 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우리 세 사람은 노점 평상에 허리를 굽혀, 우동을 먹었다. 내 그릇 안에는 삼각형 유부가 들어 있었다.

“왜 아빠와 엄마 우동에는 유부가 들어가 있지 않아?”

“시끄러워, 아이들은 조용히 먹는 거야…….”

나는 유부 한 조각을 아버지의 그릇 속으로 집어넣고는 씩 웃었다. 아버지는 맛있게 그것을 먹었다.⁴¹⁾

위의 문장에서는 애정 어린 부녀관계를 느낄 수 있다. 아버지는 오노미치에서 장사를 하며 조금 안정되자, 제일 먼저 마사코의 장래를 생각하여 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다. 아버지는 마사코의 나이도 있고 글도 잘 읽을 수 있으니 초등학교 6학년으로 보내고 싶었다.

“말 안하고 있으면, 6학년에 들어 갈 수도 있겠지. 글은 잘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산수는 어려워.”

“어쨌든 공부해. 내일은 데리고 갈 테니까.”⁴²⁾

마사코는 학교에 간다는 것이 불안하면서도, 기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버지가 마사코를 직접 학교까지 데리고 가서 편입학을 시킨다.

39) 和田芳恵(1981), 전제서, p.522

40) 후미코는『방랑기』에서 의붓아버지는 “오카야마” 출신이며, “소심하다 할 정도로 지나치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다.

41) 私達三人は、露店のパンコに腰をかけて、うどんを食べた。私の井の中には三角の油揚げが這入っていた。「どうしてお父さんのもの、お母さんのもの、狐がはいつとらんと?」「やかましいか! 子供は黙って食ふがまし……」私は一片の油揚げを父の井の中へ投げ入れてニヤッと笑った。父は甘美そうにそれを食った。(pp.10-11)

42) 「沈黙つとりや、六年生でも入れようたい、よう読めるとぢやもの……」

「それでも、算術はむづかしかるな?」

「ま、勉強せい、明日は連れて行つてやる」(p.15)

학교와 관련하여 후미코는 『방랑기』에서, 학교를 자주 옮겨 다녀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스스로 “포기”했다고 적고 있다.⁴³⁾ 연구자 다케모토 지마키치(竹本千方吉)는 “의붓아버지 사와이가 취학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후미코의 강한 원망과 요구”⁴⁴⁾에 의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후미코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해도 친부도 아닌 의붓아버지가 교육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학교로 데리고 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사코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오노미치에서도 학교에 취미를 붙일 수 없었다.

- 나는 점점 학교에 가는 일이 싫어졌다. 학교에 익숙해지자, 아이들은 다가와 나를 “오이치니의 새 바보 대장의 딸”이라고 놀렸다. 나는 채플린(Charles Spencer Chaplin)의 새 바보 대장과 아버지의 모습은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 아버지는 오랫동안 내린 비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노란 찹쌀 밥이 이어졌다. 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마구간을 연상해야 했다.
나는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먹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는 음악실로 들어가 오르간을 쳤다. 나는 아버지의 아코디언 악보로 오르간을 쳤다.
- 나는 말이 난폭해서 자주 선생님에게 혼났다.(중략)
“도쿄어를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모두「うちはね」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가끔 잊고「わしはね」라고 해 모두에게 비웃음 받았다. 학교에 가면, 본 적도 없는 아름다운 꽃과 석판 그림 많이 볼 수 있어서 즐겁고도 있었지만, 많은 아이들은 언제나 나에게 “새 바보 대장”이라 놀렸다.⁴⁵⁾

마사코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위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새 바보대장”이라고 놀림당하는 것이 가장 싫었다. 끝내 어머니에게 마사코가 “이제 학교가

43) 『放浪記』, p.6 참조

44) 竹本千方吉(1985), 전계서, p.94

45) 私は段々学校へ行く事が厭になった。学校に馴れると、子供達は、寄つてたかつて私の事を「オイチニイの新馬鹿大将の娘ぢや」と、云つた。

私はチャップリンの新馬鹿大将と、父の姿とは、似つかないものだと思つていた。(p.18)

・父は長い雨で腐り切つてゐた。黄色い栗飯が続いた。私は飯を食べるごとに、厩を聯想しなければならなかつた。私は学校では、弁当を食べなかつた。弁当の時間は唱歌室にはいつてオルガンを鳴らした。私は、父の風琴の譜で、オルガンを上手に弾いた。(p.18)

・私は、言葉が乱暴なので、よく先生に叱られた。(中略)

「東京語をつかわねばなりませんよ」それで、みんな、「うちはね」と云う美しい言葉を使い出した。私は、それを時々失念して、「わしはね」と、云つては皆に嘲笑された。学校へ行くと、見た事もない美しい花と、石版絵がたくさん見られて楽しみであったが、大勢の子供達は、いつまでたつても、私に対して、「新馬鹿大将」を止めなかつた。(p.18)

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초등학교는 나와야 한다”며 반대 한다. 마사코는 그때부터 학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산으로 놀러 다니다 학교 마칠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이렇게 마사코가 학교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을 즈음, 아버지는 장사가 잘되지 않아 생활고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다. 이때, 지인의 소개로 새로 화장품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이 화장수를 팔기 위해 이와 같은 노래를 어디 선가 배워 왔다.
 한 병 바르면 연 분홍색
 두 병 바르면 눈처럼 하얀 피부
 여러분! 사세요.
 사지 않으면 예뻐지지 않아요.
 아버지는 이 리듬에 맞추어 아코디언을 연주하는데 닳새나 걸렸다.⁴⁶⁾

그러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가짜 화장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뒤 따라간 마사코는 경찰관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한다.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어머니가 내 눈에는 쥐보다 작게 보였다. 아버지가 그 어머니 앞에서
 순경으로부터 호되게 따귀를 맞고 있었다.
 “자, 불러 봐?”
 아버지는 이상한 목소리로 오르간을 울리며,
 “두 병 바르면 눈처럼 하얀 피부”라고 노래를 불렀다.
 “더 큰 소리로 불러!”
 “헛 헛……밀가루를 발라서, 하얀 피부가 되면 싸지 않아”
 슬픔이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는 순경에게 마구 따귀를 맞고 있었다.⁴⁷⁾

46) 父はこの化粧水を売るについて、この様な唄をどこからか習つて来た。

一瓶つけければ桜色

二瓶つけければ雪の肌

諸君! 買ったまえ

買わなきゃ炭団となるばかり。

父は、この節に合せて、風琴を鳴らす事に、五日もかゝつてしまった。(p.20)

47) 部屋の際に母が鼠よりも小さく私の眼に写つた。父が、その母の前で、巡査にびしびしビンタを殴られてゐた。「さあ、唄うてみんな!」父は、奇妙な声で、風琴を鳴らしながら、「二瓶つけければ雪の肌」と、唄をうたつた。「もつと大きな声で唄わんかッ!」「ハッハッ……うどん粉つけて、雪の肌いなりやア、安かものぢや」悲しさがこみあげて来た。父は闇雲に、巡査に、ビンタをぶたれてゐた。(p.22)

오노미치에서의 생활은 마사코에게 있어 “아름다운 풍경과 평화로운 날들”로 그녀에게 “꿈과 즐거운 추억”을 가져다주었지만, 이렇게 가난으로 인한 “슬픔”⁴⁸⁾도 함께 느끼게 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1914년 6월-1918년11월)’ 중인 1916년⁴⁹⁾이다. 일본은 중국대륙을 침략의 발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영일(英日) 동맹을 이유로 참전했다. 이 전쟁으로 유럽은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일본은 경공업 부분에 수출국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런 국가의 외형적인 발전은 있었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궁핍해졌다. 게다가 1918년에는 시베리아 출병을 선언했다. 연이은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에다, 쌀 파동까지 겪게 된다.⁵⁰⁾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사회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했다. 마사코 아버지는 가짜 화장품을 팔았지만, “개고기를 쇠고기로”, “통조림 안에 돌맹이”를 넣어 속여서 파는 일도 있었다.

그 무렵, 바구니에 소고기를 담아 팔려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다. 돈 벌이가 괜찮았는지 어머니는 선심 쓰듯 자주 그것을 샀다. 곤약을 넣자 피 같은 색이 되어 “개고기가 아니야”라면서도 세 사람은 싸기 때문에 자주 그 고기를 먹었다. “역시 개고기야” 아래층 아주머니가 사 온 고기를 개에게 주었더니 역시 먹지 않았으며 그것이 개고기 인 것을 확인했다. ⁵¹⁾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한 일은 그다지 큰 잘못이 아니라고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서에 연행되었을 때 심한 구타를 당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사코는 끝내 해변가로 뛰쳐나가 버리고 만다.

마사코를 통해 그려내고 있는 오노미치에서의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후미코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후미코는 『방랑기』에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 세상은 아버지와 어머니 나 세 사람만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제 아무리 망해도 어린 나와

48) 福田清人遠藤充彦(1966), 전제서, p.29

49) 후미코가 1916년에 오노미치에 도착하였다. 작품의 내용상 마사코가 그해 6학년에 편입학하여 다니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적고 있어, 시대적인 배경은 1916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0) 이와부치 히로코·기타다 사치에 편저, 이상복·최은경역(2008)『처음 배우는 일본여성문학』어문학사, pp.194-196 참조

51) この頃、籠の中へ、牛肉を入れて売って歩く婆さんが来た。もうけがあるのであろう、母は氣前よく、よくそれを買った。蒟蒻を入れると、血のような色になつて、「犬の肉でもあつとじゃろ」と、三人とも安いのでよく、その赤い肉を食つた。「やつぱし、犬の肉でやんすで」階下のお婆さんは、買った肉を犬にくれたら、やつぱし食わなかつたと、それが犬の肉である事を保証した。(p.21)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던 아버지의 진실을 생각하면 나는 힘껏 일을 해서 보답하고 싶었다.⁵²⁾

후미코는 아버지가 친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 때 “17,18세 무렵에는 그 아버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방랑기』 p.182)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아버지를 가엾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방랑기』에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는 후미코는 『아코디언과 해변마을』에서도 마사코를 통해,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행상을 하던 모습과 모욕을 당하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아코디언과 해변마을』에 친부와 의붓아버지 구별 없이 ‘아버지’라고 되어 있듯이, 친부와 거의 교류가 없었던 후미코에게 당연히 의붓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 속 깊이 후미코는 친부도 아닌 의붓아버지가 자신들 모녀를 위해 경찰관으로부터 구타까지 당하면서 희생하는 모습에 연민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마사코를 통해 아버지의 희생을 그려내고 있다고 본다.

4. 결론

후미코에 있어 오노미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규슈에서 오사카로 가는 도중, 후미코 가족은 아름다운 마을 풍경과 분위기에 매료되어 “도시락 값”이라도 벌 목적으로 오노미치에 내린다. 이를 계기로, 후미코 가족은 후미코가 초등학교와 고등여학교를 졸업 할 때 까지 정착하게 된다. 행상을 하는 부모를 따라 방랑하던 후미코에게 있어서는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런 오노미치에서의 생활은 후미코에게 있어 아름다운 자연 환경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추억도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여, 졸업 후 도쿄에서 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고향 같은 곳이 되었다.

후미코는 『아코디언과 해변마을』에서, 오노미치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며 주인공 마사코를 통해 자신의 유년기 시절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느꼈던 감정들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52) この世の中はお父さんとお母さんと私の三人きりの世界だと思つた。どんなに落ちぶれてても、幼い私と母を捨てなかつたお父さんの眞実を思ふと、私はせいじつばいの事をして報いたく思つてゐる。(『放浪記』, p.179)

실제로 후미코는 오노미치에서의 초등학교 5, 6학년을 보냈지만, 마사코가 6학년으로 편입학한 상태로 6개월 남짓한 시간적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후미코의 오노미치에서의 초등학교 시절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정리 되어 있다. 그리고 마사코의 남자 친구와 실제 후미코의 첫사랑인 오카노 군이치와는 연령차이가 있지만, 군이치를 만난 곳이 오노미치 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아코디언과 해변마을』은 후미코가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을 어느 작품 보다 많이 그려내고 있다. 마사코에게는 아버지가 아코디언을 켜면서 약장사를 하다가 화장품으로 업종을 바꾸고 난 후 생긴 일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난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후미코는 마사코를 통해 어린 시절 겪었던 가난으로 인한 아버지의 고통을 상기시키고 있다. 텍스트에서의 아버지는 친부와 의붓아버지라고 구분이 없지만, 후미코의 자전적인 소설 『방랑기』를 참조하면 의붓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작품을 고찰함에 있어 후미코의 가족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오노미치에서의 생활이 자전적 성향이 농후하면서도 연령 차이를 비롯하여 학년의 차이, 실제 생활 수단의 차이 등이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후미코 연대표를 대조해야만 하는 애로 사항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코디언과 해변마을』은 오노미치에서 보낸 후미코의 유년기시절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후미코와 기쿠와의 모녀관계 보다는 의붓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친부와 차이가 없는 부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후미코에게 있어 오노미치는 고향 같은 곳이며, 그곳에서 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가장 잘 형성 된 곳이기도 하다.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가짜 물건들이 득실거리는 그 당시의 경제적 불안으로 어수선한 사회상도 함께 표출하고 있다.

【參考文獻】

- 박호영(2007)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 『풍금과 물고기마을(風琴と魚の町)』론」 『일본어문학』 37 일본어문학회, pp.355-376
- 이와부치 히로코·기타다사치에 편저, 이상복·최은경역(2008) 『처음 배우는 일본여성문학』 어문학사
- 麻生和子(1998) 「『風琴と魚の町』」 『國文學 解釋と鑑賞』 63(1) 至文堂, pp.100-103
- 足立卷一 외 3인 편 (1998) 『風琴と魚の町』 『現代日本文學 アルバム 林芙美子』 学習研究社, p.216
- 板垣直子(1987) 『林芙美子』 『婦人作家評伝』 日本図書センター, pp.1-238
- 井上隆晴(1990) 『林芙美子とその周辺』 武蔵野書房
- 今川英子(2003) 「年譜」 『林芙美子誕生100年 記念 林芙美子展』 株式会社アートプランニングレイ, pp.62-63
- 川本三郎(2003) 「林芙美子 略年譜」 『林芙美子の昭和』 新書館, pp.399-407

- 清水英子(1998)『林芙美子・ゆきゆきて「放浪記」』新人物往來社
此経啓助(2011)「林芙美子の古里・尾道」『林芙美子の藝術』日本大學藝術學部圖書館, pp.108-115
竹本千方吉(1985)「親友-旅の古里・尾道」『人間・林芙美子』筑摩書房
林芙美子(1951)『林芙美子展 生誕100年記念』新潮社, pp.62-63
_____(1951)『林芙美子全集』2 新潮社
_____(1952)『林芙美子全集』19 新潮社
平林たい子(1969)『林芙美子』新潮社
_____(1974)「解説」『日本の文學』47、中央公論社, pp.486-496
福田清人・遠藤充彦(1966)『人と作品 林芙美子』15 清水書院
森まゆみ(2004)『林芙美子 放浪記— 森まゆみ解説』みすず書房
山形曉子(1999)「林芙美子『風琴と魚の町』」『民主文學』406、新日本出版社, pp.140-145
和田芳恵(1981)「解説」『新潮日本文學』22、新潮社, pp.522-541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하야시 후미코와 오노미치(尾道)

- 『아코디언과 해변마을(風琴と魚の町)』을 중심으로 -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어 있는 오노미치(尾道)에 정착하기 전, 행상을 하는 후미코 부모는 항상 떠돌아 다녔다. 그런 생활의 연장선에서 일시적으로 머물 생각이었던 오노미치에서 후미코는 초등학교와 고등여학교를 졸업 할 때 까지 정착하게 된다. 오노미치는 후미코에게 있어 아름다운 자연 환경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추억도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며, 첫사랑으로 알려진 오키노 군이치를 만난 곳이기도 하다. 후미코가 여학교를 졸업 한 후 도쿄에서 생활하다가도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고향 같은 곳이 오노미치이기도 하다.

또한,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아코디언을 켜면서 약장사를 하고, 가짜 화장품 판매로 경찰관에게 매 맞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후미코는 가난으로 인한 아버지의 고통을 상기시키며, 후미코 모녀를 위한 아버지의 희생이었다고 회상한다. 이런 오노미치에서의 모든 일상을 후미코는 주인공 마사코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텍스트에서는 친부와 의붓아버지라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후미코의 자전적인 소설『방랑기』를 통해 의붓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아코디언과 해변마을』에서는 후미코의 오노미치에서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고, 후미코와 기쿠의 모녀 관계 보다는 의붓아버지와 관계가 가장 잘 그려져 있어『방랑기』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 후미코 자신의 자전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당시의 경제적 불안으로 가짜 물건들이 유통되고 있는 어수선한 사회상도 함께 표출하고 있다.

Fumiko Hayashi and Onomichi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Town of Accordion and Umibe no Machi” -

Parents of Fumiko went wandering before settling down in Onomichi where is the background of this piece of novel. They believed it would be temporary as they came to town, but finally stayed there until Fumiko finished her secondary school. The town became memorable not only due to the beautiful nature, but also the time with her parents and Gunichi Okano who is known as her first love. Onomichi was found as her identity-embedded place as she faced a hard time in Tokyo after secondary school. In town, Fumiko had a memory of her father victimized his family. He was slapped by policemen as he sold fake cosmetics, playing an accordion to live.

All of those experiences were drawn through the heroine Masako. She expressed her pity to her father in law despite she did not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father and father in law in the text of “Horoki”.

As referred above, her life in Onomichi was realistically described in “The Town of Accordion and Umibe no Machi”. Her relationship to her father in law was more drawn than the one to her mother, which can be a key to understand “Horoki”. It also can be seen that the uncertain economy forecast of the society thorough the distribution of fake products on her own experience.